

송일국 "태극기 든 삼동이 사진 탄핵반대집회 사용말라"

연기자 송일국이 자신의 '삼동이' 아들인 대한·민국·만세의 사진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참여를 독려하는 문자메시지에 쓰이고 있는 데 대해 경고하고 나섰다. 송일국은 5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밝혔다. 그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아 달라. 부모로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송일국

소속사가 키운 강동원 '친일파 후손 논란'

'외증조부 친일인명사전 기재' 알려지자 YG "명예훼손" 과잉대응으로 공분 확산 강동원 뒤늦게 "부끄러운 과거 알게됐다"

배우 강동원이 친일파 후손 논란에 휘말렸다. 국민 정서가 민감한 시안인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지만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는 관련 사실이 퍼지는 것에만 연연한 나머지 '명예훼손'이라며 과잉 대응을 펼쳐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송승장구하던 강동원이 위기를 맞고 있다.

논란의 시작은 2월27일 한 온라인 영화사이트에 '배우 인적 사항'이라는 제목의 카드 뉴스가 등장하면서 불거졌다. 친일파와 독립운동가의 후손 가운데 몇몇 스타가 거론됐고, 강동원은 친일파 후손으로 언급됐다. 외증조부 이종만이 일제강점기 금광업에 종사하며 일제의 전쟁에 협력해 2009년 친일인명사전에 기재된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역사적 사실에 바탕을 두고 판단해야 할 사안은 강동원의 소속사 YG의 명예훼손 언급으로 인해 공분을 자아내는 쪽으로 확산됐다. YG는 강동원 외증조부의 친일 행적 관련 내용이 온라인을 통해 퍼지자 게시물 삭제요청했고, 실제 실행했다. 강동원의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였다.

YG의 과잉 대처는 외증조부의 친일이 후손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안인지에 대한 논쟁으로

급속히 번졌다. 역사를 통한 판단 기회마저 빼앗아 여론을 통제하려는 YG의 대처가 예민한 국민 정서를 그대로 건드렸다.

더욱이 그 과정에서 YG가 당사자인 강동원과 충분한 상의를 거쳤는지 여부에도 의문이 남았다. 그동안 잡음을 최소화하면서 활동해온 강동원의 신중한 행보를 비춰 YG의 성급한 대처가 이해되지 않는다는 업계의 반응이 크다.

의도치 않았지만 대중의 화살은 강동원으로 향했고 직접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자 5일 오후 입을 열었다. 강동원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아야 하고 다시는 부끄러운 일이 되풀이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해왔다"며 "외증조부의 부끄러운 과거를 알게 됐고 이번 일을 통해 역사에 대해 더욱 공부하고 반성하겠다"고 사과했다.

하지만 의혹은 말끔히 해소되지 않았다. 강동원이 2007년 인터뷰에서 '외증조부는 훌륭한 분이셨다'고 말한 사실을 두고 누리꾼은 여전히 의심의 시선을 거두지 않고 있다. 이에 강동원은 "당시 (외증조부 친일 행적) 정확히 인지하기 못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종만은 2005년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가 발표한 수록자 명단에 이미 포함돼 대적으로 알려져 퍼지자 게시물 삭제요청했고, 실제 실행했다. 강동원의 인터뷰는 그로부터 2년이 지난 뒤 이뤄진 만큼 굳이 '훌륭한 분'으로 언급할 필요가 있었느냐는 의구심은 여전하다.

이혜리 기자 go11024@donga.com



강동원의 외증조부가 친일인명사전에 기재된 사실이 확인된 가운데 소속사가 성급하게 이를 진화하려다 논란이 증폭됐다. 강동원은 5일 오후 "역사를 공부하고 반성하겠다"고 사과했다.

연예뉴스 스테이션

미국 팝스타 토미 페이지 세상 떠나



1990년대 국내에서도 큰 인기를 누리던 미국의 팝스타 토미 페이지가 4일(한국시간) 세상을 떠났다. 미국 뉴욕타임스 등 현지 언론들은 이 같은 소식을 전했다. 일부에서는 그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기도 하다. 1970년생인 토미 페이지는 1988년 데뷔해 1998년 '아일 비 유어 에브리씽'(I'll Be Your Everything)으로 빌보드 1위에 오르는 등 스타로 군림했다. 잘 생긴 외모와 감미로운 목소리로 국내에도 많은 팬을 거느린 그는 한국과도 인연이 깊다. 외증조할머니가 한국계로 알려져 있고, 한창 활동할 당시 1990년 한국에서 가수 하수빈과 함께 초콜릿 광고를 찍는 등 한국을 자주 찾아 팬들과 만났다.

토미 페이지

네치레 수술 문근영, 퇴원 휴식중



'급성구획증후군'으로 네치레 수술을 받은 연기자 문근영이 퇴원해 휴식을 취하고 있다. 문근영은 최근 관련 치료를 받고 호전된 상태로 병원에서 나와 귀가했다. 2월 초 오른쪽 팔에 연기자 문근영 갑작스러운 통증을 호소한 뒤 급성구획증후군 진단을 받은 그는 응급수술을 포함해 지금까지 모두 네 차례 수술을 받았다. 이 때문에 출연기로 한 연극 '로미오와 줄리엣' 지방 공연을 취소하기도 했다. 소속사 측은 "문근영이 이른 시일 내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인사하겠다"고 밝혔다.

연기자 문근영

걸그룹 마마무, 인종차별 논란 사과

걸그룹 마마무가 인종차별 논란에 휩싸인 뒤 이에 사과했다. 마마무는 3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단독 콘서트를 펼치며 마크론X브루노 마스의 '업타운 핑크' 무대를 선보였다. 하지만 얼굴을 검게 칠하고 무대에 올라 인종차별 논란에 휘말렸다. 이에 마마무 소속사 RBW는 4일 공식 팬카페를 통해 "콘서트를 통해 다른 모습을 보여주려고자 유명곡 뮤직비디오를 패러디하려 했지만 오해의 소지가 생겨 2회차 공연부터는 문제 부분은 편집하겠다. 앞으로 세심한 부분까지 좀 더 신경 쓰겠다"고 사과했다.

'여자친구' 네번째 앨범 선주문 10만장



걸그룹 여자친구

걸그룹 여자친구가 6일 내놓을 네 번째 미니앨범으로 선 주문량 10만장을 기록했다. 5일 소속사 쏘스뮤직에 따르면 여자친구는 지난달 새 미니앨범 '디 어웨이크닝'(THE AWAKENING)의 예약 판매를 지난달 27일 시작해 주문 물량 10만장을 넘어섰다. 지난해 7월 첫 정규앨범 'LOL'이 6만장을 기록한 것을 훌쩍 뛰어넘었다. '디 어웨이크닝'은 '사랑에 눈뜨다'는 의미를 담아 타이틀곡 '핑거팁'(FINGERTIP) 등 6곡을 수록했다.

중국 한국관광 금지령...한류행사 직격탄

사인만 남겨두었던 '한중 수교 25주년 한류축제' 돌연 취소

5일 초 연휴 맞아 준비했던 국내행사 수천명 중국 관광객 입국 불가로 무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한반도 배치 결정에 따른 중국 정부의 보복 조치가 전방위로 확산되는 가운데 한중 수교 25주년을 기념하는 국내 한류 행사마저 취소됐다. 최근 중국 당국이 내린 한국 관광 금지령의 직격탄을 맞은 것이다. 5일 가요계 관계자에 따

르면 5월3일 인천 송도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중 수교 25주년 기념 한류축제(가칭)'가 가수들의 출연 계약 직접 취소되고 말았다.

이번 무대는 5월 초 황금연휴를 맞아 중국의 한 엔터테인먼트 업체가 현지 여행사와 손잡고 수천명 단위의 중국인 단체 관광객을 이끌고 한국에 입국해 한류공연을 펼치는 프로그램. 중국에서 인기 높은 케이팝 가수 6명이 출연하기로 주최 측과 구두로 약속하고 계약서 사인만을 남겨둔 상황이었다.

하지만 3일 주최 측은 전격적으로 이 행사 계획을 철회했다. 행사 취소가 결정된 3일은 중국 국가여유국이 자국 여행사들에 내린 '한국 관광 금지 지침'이 알려진 날이었다. 중국인 단체 관광객 입국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지면서 행사 계획에 차질이 빚어졌고, 중국 측 관계자는 출연을 예정했던 케이팝 가수들 측에 3일 오후 행사 취소를 통보했다.

당초 이번 무대에 참여기로 했던 한 가수 측은 "3일 오후 갑작스럽게 '행사가 연기됐다'는

통보를 받았다"면서 "주최 측은 '연기'라고 하지만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는 한중 수교 25주년을 기념하는 행사이고, 중국의 한류 팬들을 위해 국내에서 열리는 무대여서 업계에서 관심이 높았다. 작년부터 제기된 '한한령' 이후 중국의 한류 무대가 거의 사라진 상황에서 국내 행사를 통해 이를 이겨내는 대안으로 삼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었지만 이마저 무너져버렸다. 김원경 기자 gymmy@donga.com

소지섭 '3000석 중국팬미팅'도 취소?

1만석 이상 대규모 공연만 안된다더니... 1월부터 조용해진 4월 행사 허가안해

연기자 소지섭이 데뷔 20주년을 기념해 4월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지역 팬미팅에 나선다. 하지만 5일 현재까지 중국에서만 유독 공연 허가를 받지 못해 그 배경에 관심이 일고 있다.

5일 한류에이전시 관계자에 따르면 소지섭은 4월 중순 중국 광저우에서 아시아 팬미팅 '트윈터:더 모멘트'를 펼칠 계획이었다. 이를 위해 1월 초부터 현지 프로모터와 긴밀히 내용을 조율해왔다. 하지만 이날 현재까지 개최 여부에 대한 허가를 받지 못한 상태다. 소지섭은 광저우 공연에 앞서 대만(4월 2일), 인도네시아(4월 7일), 홍콩(4월 27일) 등에서 무대를 열기로 하고 입장권 예매를 시작했다.

에이전시 관계자는 "중국에서는 행사가 갑작스럽게 연기되거나 취소되는 일이 간혹 발생하지만 이번 소지섭 팬미팅은 일찌감치 계획했던 일여서 진행상 그럴 만한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한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 결정에 대한 보복으로 한류 관련 콘텐츠를 전면 차단하려는 중국 측 움직임 가운데 하나로 의심하고 있다. 에이전시 측은 "상황이 더 나빠져 공연이 무산될 가능성도 높다"고 말했다.

소지섭은 1000~3000석 공연으로 무대를



연기자 소지섭

열 계획이었다. 지난해 7~8월 '한한령'이 큰 논란을 모았을 당시 현지에서 암암리에 적용됐던 '1만석 이상 공연 금지'에 해당하지 않는 규모다. 하지만 이마저도 현지 당국이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한류 지우기'가 더욱 강화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자아낸다. 이정연 기자 annjyo@donga.com

윤은혜는 조용한 한류자존심 지키기

최근 한국서 중국 제품 광고 촬영 '커피프린스1호점' 공유 후광효과

연기자 윤은혜가 조용하지만 잔잔하게 한류스타의 자존심을 지키고 있다.

윤은혜는 최근 국내에서 중국의 한 제품 모델로 나서 광고를 촬영했다. 지난해 사드 배치 결정 이후 중국 입국 절차가 까다로워져 현지 스태프가 직접 한국으로 들어와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은혜는 앞서 사드로 인한 위기감이 한창 고조될 당시에도 중국 화장품 광고모델 계약을 성사시키고, 현지 드라마와 영화 등 출연 제의를 받으며 한류스타로서 꾸준히 이름을 올렸다. 2000년대 초반부터 쌓은 인지도 덕분이다.

최근에는 윤은혜에 대한 반응이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 1월 인기리에 종영한 드라마 '도깨비'의 인기와 주인공 공유에 대한 아시아 팬들의 관심이 윤은혜에게 후광효과로 작용한 덕분이다. 윤은혜는 공유와 함께 2007년 드라마 '커피프린스 1호점'에 연인으로 출연해 국내는 물론 중국에서 상당한 화제를 모았다. '커피프린스 1호점'은 중국에서 리메이크돼 윤은혜가 당시 캐릭터 그대로 특별출연할 정도로 현지에서도 10년 동안 인기가 식지 않았다.

한편 윤은혜는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도 인기를 누리고 있다. 윤은혜는 태국에서 자신의 이름을 내건 커피숍도 운영 중이다.

백슬미 기자 bsm@donga.com



연기자 윤은혜

편집 | 최혜경 기자 hk.7048@donga.com

영화 랭킹

순위	영화	누적관객	개봉일
1	로건	836,919	03/01
2	23 아이덴티티	1,462,233	02/22
3	해빙	759,494	03/01
4	재스	2,215,727	02/15
5	스틸	619,923	02/16
6	조작된 도시	2,480,632	02/09
7	싱글라이더	333,780	02/22
8	존 워 - 리로드	240,156	02/22
9	눈길	74,170	03/01
10	헝스 고지	160,222	02/22

자료:영화진흥위원회 2월 26일~3월 4일

1위 영화 정보보기

